

‘먹튀 여행사’... 해외여행 사기 피해 주의보

광주시 관광협회 등록 업체 대표가 여행비 챙겨 잠적 과다 위약금·일정 변경 등 신희여행사 피해도 증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영세 여행사 대표가 해외 여행 상품 계약 체결을 빙자, 여행 경비를 받고 잠적하는 ‘여행 사기’가 발생했다.

광주시 관광협회에 등록된 여행사가 여행 경비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자칫 지역 여행을 통한 해외 여행 상품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특히 안정적 영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여행업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경우 사고 이후에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 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A씨 등 4명은 9일 오전 9시에 인천공항을 출국, 중국 장가계·천문산 등을 4박 5일 일정으로 둘러본 뒤 13일 돌아오는 여행 상품을 1인당 130만원을 주고 계약했

으나 출국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여행사로부터 ‘대표가 사라져 여행을 못 가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이미 여행비 500여만원을 모두 여행사측에 현금으로 입금했고 지난 4일 여행사를 방문, 대표에게 관련 일정도 받고 모든 여행 준비를 끝냈던 뒤라 황당해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여행사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는 ‘부모 병원 문제로 당분간 영업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행사는 또 오는 7월 단체 해외 여행객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여행사의 경우 광주시 관광협회에 등록되고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여행 업체다. 이 때문에 광주시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올라놓은 ‘간신히 믿을 수 있는 광주시 관광협회 회원사 이용으로 여행피해(사기)를 사전에 예방합시

다’라는 글이 무색할 정도다.

광주시 관광협회는 “220여개 여행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160여개 업체로, 60여개 협회 무등록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희여행, 효도관광은 물론, 국내·외 단체 관광 계약시 협회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광주시 관광협회의 부실한 여행업체 관리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여행 사기’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 자유와 이후 신희여행사들을 상대로 한 해외 여행 피해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1년 89건 ▲2012년 90건 ▲2013년 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원은 ‘여행 일정의 임의 변경’ 59건(21.5%), ‘소필 강요, 추가 요금 징수 등 가이드 부당행위’ 57건(20.8%) 등을 빼지 않는 단골 피해 접수 사례로 분석했다.

하지만 해외 여행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데도, 소비자가 여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해

제를 받거나 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135건·49.3%)에 불과한 실정이다. 큰 마음 먹고 여행을 준비했다가 모든 경비를 날리고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형 도매 여행업체의 여행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 여행사들의 경우 모집한 여행객 연락처 등을 대형 여행사 측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가 하면, 여행 경비도 소비자들에게 받아 즉시 입금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도 많아 출발 당일까지만 피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는 게 여행업계 설명이다.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기 혹은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피할 것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광 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가입 전 확인할 것 ▲여행 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번엔 길거리 응원 대신 영화관 응원 월드컵 아침 경기에 세월호 추모 분위기 겹쳐

광주 CGV 등 관람권 예매

지구촌 최대스타 축제 중 하나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4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응원하는 길거리 응원은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최국인 브라질과의 시차가 12시간이나 돼 새벽과 아침시간에 대표팀 경기가 몰려 출근시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길거리 응원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길거리응원’은 어렵게 됐지만 광주 일부 영화관에서 시차 길거리 응원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CJ CGV 광주터미널점은 208석 규모의 1개 상영관에서 첫 경기 러시아전을 생중계 한다. 예매도 이미 시작됐다. 예매권은 1매당 1만원으로 ‘골

보 2천원 할인권’도 함께 증정한다. 이어 23일 오전 4시 알제리전, 27일 오전 5시 벨기에전까지 모두 1개 상영관에서 생중계 한다.

메가박스도 오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권 예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박스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메가박스 직영점을 대상으로 생중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광주는 메가박스 광주점에서 대표팀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마조기축구클럽 이재근(31·지평동)총무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다”며, “회원들과 영화관 단체관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인 탓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신안 칠발도, 바다쇠오리 국내 최대 번식지 확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칠발도(신안군 비금면)가 바다쇠오리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남해안 무인도를 대상으로 조류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칠발도에서 2000여 쌍의 바다쇠오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칠발도, 구름도에서 집단 번식하는 바다쇠오리는 해양성 조류로, 무리를 지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서식한다. 사진은 암반 사이 틈에서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바다쇠오리. <환경부 제공>

환자 ‘억제 동의서’,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전남경찰청 요양원 참사 수사 관련법 검토후 관행 개선 건의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당 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측이 환자 입원 과정에서 신체를 결박할 수 있도록 하는 ‘억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남지방경찰청 방화참사 수사본부는 8일 장성 효사랑병원 측이 환자 입원 시, 필요할 경우 의료진의 판단 아래 환자의 신체를 결박하는 ‘억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15조 1항)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자

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효사랑요양병원의 경우, 억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원 서류에 포함된 억제 동의서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입원 자체가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요양병원 측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억제 동의서’를 제출하게 만든 행위 자체가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요양병원 입원시 환자 측이 억제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화재가 난 장성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환자 측에게 ‘신체 결박(억제) 동의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병언 순천 빠져나가 해남 이동 정황... 밀항 대비 추적

세월호 실 소유주로 파악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경의 포위망을 뚫고 순천을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돼 검·경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순천을 벗어났다는 것 외에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이 순천을 빠져나가 해남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

날 새벽 5시30분께 해남경찰에 긴급 지원 요청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앞서 유 전 회장 도주에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관계자 소유의 회색 그랜드스타렉스(×××9158) 차량과 대군씨 소유 검은색 벤투리 차량, 미색 소나타 차량에 대한 수배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해남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해남과 목포·완도 등을 잇는 주요 지점과 함께 은신처로 추정되는 지역 등 20

개소에 경찰력 200여명을 보내 집중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제외된 막연한 검문·검색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사 당국은 아울러 항·포구가 밀집한 해남과 목포·신안·완도 등에서의 밀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안가 주변 탐문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신안군에는 유씨 장남 대군(44)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도씨가 부친에게서 물려

받은 ‘D염전’이 있고 완도군 보길도에 유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 부황리에는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돌셋 농장’이 있다.

유 전 회장이 순천을 벗어난 만큼 검찰의 허술한 수색망이 또다시 뚫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유 전 회장이 순천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동원, 해당 지역에서의 수색을 지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순천을 빠져나갔다는 것 외에 뚜렷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신축원룸매매 (용봉)

용봉지구 미래로APT 입구코너 옆
(전대상대5부, 군산아구짬앞, 르까프매장뒤)

신축 4층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룸 21개 월수익 880만
(1년수익 1억500만)

E/V,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준공완료
4층 주거하면서 월수익 수익성보장

매가 10억5천
(용3억 보2억 실투자 5억5천)

수익률 12%

(주)대신 010-6670-9800 / (062)952-5584

전대원룸매매(전대1분)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신축 4층(1층점포, 4층고급주택)
룸12개 월수익 500만(1년 6천만)
매가 6억5천보3천 용1억2천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신축 4층 준공완료, E/V원비
룸18개 월수익 750만(4층 주택)
매가12억보5천 용2억6천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룸18개 1층 상가2칸
월수익 680만 매가8억보4천 용1억

용봉동 전대예술대후문
룸11개 월수익 400만 매가4억

나주 이창동 원룸
룸18개 월수익 550만
매가 3억8천보3천 용1억2천

상가임대

수원지구 상가3층 25평
(모아파트 상가앞, 신한은행 뒷)
보1천 월50만 E/V원비

수원지구 상가1층 18평(대형5차 후문)
보2천 월120만

전대사거리 1층점포 50평
보2천 월150만 6차선 도로인접

북구 우산동 1층 80평
보2천 월120만

토지매매(나주 산포면)
나주산포면 등수리
생산농지(투자적합)
920평 매가3억(용1억5천)

교환전문(상가, 토지)
원룸, 상가, APT, 토지
(1억~100억까지 교환합니다)

경매투자전문
경매투자해서 재산증식 하실분
(5천만~50억까지 물건)
(APT, 상가, 토지, 공장, 원룸 등)

경매 같이 하실분 연락주세요,
062)521-1060

신축원룸임대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로APT 코너 옆, 군산아구짬 앞 신축 4층
(엘리베이터 원비)

플옵션
32인치TV, 세, 냉, 예,
유선, 불박이,
신발장, 전체 무료

**원룸 보200만 월30만
투룸 보300만 월42만**

*입주자에 한하여 시은품 증정

명품 미래도빌
062)527-7600

상가매매 (수익성, 노후보장)

수원지구 신한은행뒷 모아엘가APT 5,000세대 밀집지역

4층건물 중 3층 85평
월수익 200만(1년 2400만)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천)
실투자 7000만 수익률 13%

부영APT 7,000세대 앞 대상오션스파
8층건물 중 2층
62평(보1천 월80만) 매가7억7천
(용9000만 실투자7000만)

신안사거리에서 무등경기장 쪽
주택상가(1층상가, 2층주택)
매가4억2천(1층공실, 2층주거함)
(전시관, 세차장, 공업사홍보 적합)

6층상가건물(목욕탕)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코너
월수익 600만 매가 8억5천보2억 용4억5천
직접운영하면서 월세수의 발생

오피스텔 매매 (원룸형, 투룸형)
쌍촌동 윤천역 1번출구 2분

울수리, 전자제품신규교체
①원룸형(10평) 매가3천4백
보200 월27만 용1000만 실투자2300만
②원룸형(12평) 매가3천5백
보200 월30만 용1000만실투자2300만
★2개매입시 총매가6천3백
월수익 57만(1년 680만)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7평 매가 1억5천 → 월임가 1억2천
보증금 1000 월70만용 7천만원
사무실 인테리어 원비

상무지구 오피스텔 3층
30평 매가 1억6천 → 월임가 1억4천
현대아파트 앞 보증금 1000 월70만
(사무실, 학원, 연구실, 투자적합)

신한 010-6832-9700 / (062)512-8080